



외국인유학생 유치 활성화 방안

2010 국제화포럼

2010. 11. 30



- 일시 : 2010.11.30(화) 14:00~16:00
- 장소 :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401대강의실
- 주최 :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 주관 :  대전발전연구원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 후원 : 배재대학교

◆ 진행 순서 ◆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3:30	14:00	30'	등 록	·대전시정 홍보 동영상
			포 럼	·진행사회 문경원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14:00	14:05	5'	환 영 사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14:05	14:10	5'	축 사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
14:10	14:25	15'	기조발표 I	·최정순 배재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교수 ‘외국인유학생 유치 및 관리방안’
14:25	14:40	15'	기조발표 II	·최영조 국제교류센터 부원장 ‘외국인유학생 취업지원관련 사업제안’
14:40	14:50	10'	휴 식	
14:50	15:40	50'	사 회	·강병수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패 널 토 론	·송인암 대전대 경영학과 교수 ·정찬목 우송대 대외협력처장 ·김종철 대전광역시 국제화기반담당 ·연규문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 철 배재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과
15:40	16:00	20'	질 의 응 답	·포럼 참가자 등 참여
16:00				·폐회 및 만찬

◆ 목 차 ◆

제1주제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지원방안 연구

I. 연구 목적 및 필요성	9
II. 국내 유학생 유치 현황	10
III. 유학생 유치 정책 관련	15
IV.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정책관련	17
V. 유학생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수립과 전담 기구 설립 필요성	22
VI. 결론	28

제2주제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업지원 관련사업 제안

I.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 추진 배경	34
II. 유학생 통계	34
III. 외국인 유학생 유치시의 문제점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추진 과제	35
IV. 졸업 후 진로 지원사업 제안	36
- 제안 배경	
- 기초조사	
- 파트타임 소개	
- 취업설명회 개최	
- 취업박람회 개최	

제 1주제 발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지원방안 연구



최 성 순

(배재대학교 교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지원 방안 연구

최정순(배재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한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자국의 인지도 및 이해를 제고시킴과 동시에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하며, 다른 한 편으로는 국가 간 인적 교류를 증진시킨다. 또한 이러한 인적 교류는 국가 간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해 주고, 한 국가의 국제적 지위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물질 자원이 지닌 한계를 결국은 인적 자원이 해결하도록 변화되고 있고, 실제 선진국에서는 국경과 인종을 넘어서 우수한 인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유학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해 주고 있으며, 장학금 등의 복지 혜택을 넓혀 나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유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유학 관련 정책을 그간의 유출 기반에서 유치 기반의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2003년 12,314명에 그치던 2010년 현재 83,842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만큼 질적인 관리 역시 중요한 사항이지만 국내 유입되어 있는 유학생들의 면면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그동안 이들 유학생들의 유치나 관리는 정부적 차원 등이 아니라 대학이 주도해 왔으며, 때로는 사설 유학원이 담당해 온 점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치는 입국 비자 발급 제한 조치 등 또 다른 모습으로서의 통제와 함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채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배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학생 관리 정책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정부적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정책 입안과 실행은 합

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졌는지 짚어봐야 할 것이다.

둘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만이 아니라 국내에 유학을 온 외국인들이 학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이들의 원활한 유학생생활의 지속을 위한 관리적 차원에서의 노력은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한다. 유치를 위한 노력과 아울러 사전에 충분히 연구되고 검토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법적인 차원에서의 비자 발급 기준의 완화, 행정적이고 교육제도적인 배려만이 아닌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후생 복지 측면에서의 지원책 역시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러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2. 국내 유학생 유치 현황

가. 연도별 유학생 현황

2003년도까지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조사하였고, 2004년도부터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조사하였다. 이에 따르면 유학생 수는 7년이 지난 지금 무려 7배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연도별 유학생 수 (2010. 4. 1 기준)¹⁾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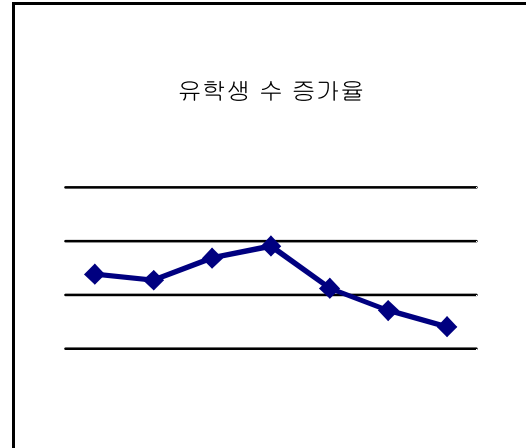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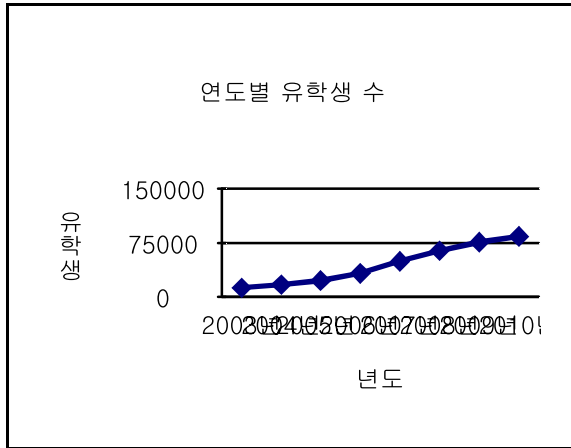
년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유학생	12,314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1)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7)(<http://www.mest.go.kr>). 2010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내부자료

<표 2>

유학생 수 증가율

년 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가율	37%	34%	45%	51%	30%	19%	11%



전체적인 유학생 수의 증가와 달리 2007년도를 기점으로 증가율은 점점 줄고 있다. 국내 유학과 관련한 정책들의 질의 저하로 인해 증가율이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우수 유학생 유치에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합리적인 유인책의 마련, 유학 중 철저한 관리 및 지원, 나아가 유학 후 국내 또는 자국(또는 제3국)에서의 활용 방안 제시 및 이들 전 과정을 포함하는 사후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국외 한국인 유학생들 역시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비 유학생 선발 및 지원과 관련된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자비 유학생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 그리고 이들을 유학 후 자국으로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안 및 활용 방안 모색 역시 시급하다.

셋째, 우수 유학생을 한국에 유치하여 양성된 인재의 사후 관리나 한국인 국외 유학생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양방향적인 정보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결국 이들 결과들에서 효율적인 유학생 관리를 위한 전담 기구가 설립되어야 한

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5. 유학생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전담 기구 설립의 필요성’에서 자세히 언급한다.

나. 유학 형태별 유학생 현황

여기서 ‘유학 형태’라고 하는 것은 유학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따른 분류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비유학생이며, 또한 이들의 수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자비유학생은 전체 유학생의 86퍼센트를 차지한다. 또한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전체 유학생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과 대학 초청 장학생의 수는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표 3>

유학 형태별 유학생 수 (2010. 4. 1 기준)²⁾

(단위 : 명)

유 학 형 태	2009년도	2010년도	증감
자비유학생	64,271	71,843	7,572
정부초청장학생	1,629	1,942	313
대학초청장학생	6,634	8,091	1,457
자국정부과건장학생	503	493	-10
기타	2,813	1,473	-1,340
합 계	75,850	83,842	7,992

다. 출신 지역별 유학생 현황

2010년 4월 현재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출신 지역(대륙)에 따라 나누어 보면, 대륙 간의 불균형이 두드러진다. 아시아 지역 출신의 유학생들은 86%를 차지하여 다른 대륙의 유학생 수를 모두 더한 것의 6배를 넘는다. 이는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교류, 대학의 국제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저해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0)(<http://www.mest.go.kr>). 2010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내부자료

<표 4>

출신 지역별 유학생 수 (2010. 4. 1 기준)³⁾

(단위 : 명)

지 역	어학 연수	과 정 별						기타 연수	합 계
		인문사회	이공계	자연계	예체능	의학계	계		
아시아	15,372	39,392	8,702	4,076	3,778	470	56,418	48	71,838
아프리카	162	433	112	47	5	11	608	809	1,579
오세아니아	64	118	14	9	11	6	158	1,154	1,376
북미	680	1,180	100	125	110	91	1,606	16	2,302
남미	152	227	57	14	10	3	311	4,693	5,156
유럽	634	699	106	41	47	6	899	58	1,591
합 계	17,064	42,049	9,091	4,312	3,961	587	60,000	6,778	83,842

라. 주요 국가별 현황

앞에서 말한 유학생의 대륙 간 불균형 경향은, 유학생들의 수를 국가에 따라 조사해 보면 더 극단적으로 드러나는데, 중국 유학생들이 전체 유학생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중국이 인구가 많고 일본과 함께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는 비중이다.

실제 대학에서의 상황은 국제화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중국 일변도인데, 중국 유학생들 스스로가 중국 학생의 비중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앞에서 말한 국가들 간의 다양하고 풍부한 교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상황으로 생각된다.

<표 5>

주요 국가별 유학생 수 (2010. 4. 1 기준)⁴⁾

(단위 : 명)

국 가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대만	몽골	기타	계
유학생 수	57,783	3,876	2,193	1,914	1,419	3,333	13,324	83,842
비율(%)	68.9	4.6	2.6	2.3	1.7	4.0	15.9	100

3)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0)(<http://www.mest.go.kr>). 2010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내부자료

4)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0)(<http://www.mest.go.kr>). 2010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내부자료

마. 학교별 유학생 수

국내 각 대학에 유학한 학생의 수는 다음과 같다.

<표 6>

유학 형태별 외국인 유학생 수 (2010. 4. 1 기준)⁵⁾

(단위 : 명)

대학명	유학형태						기숙사 수용여부			
	자비 유학	정부 초청	대학 초청	정부 과건	기타	합계	수용	미수용	계	
1	경희대학교	2,815	208	383	6	65	3,477	1,003	2,474	3,477
2	연세대학교	2,970	131	277	22	4	3,404	530	2,874	3,404
3	이화여자대학교	2,079	163	575	1	215	3,033	1,052	1,981	3,033
4	성균관대학교	2,181	34	219	43	-	2,477	612	1,865	2,477
5	건국대학교	2,407	31	24	-	-	2,462	718	1,743	2,461
6	서울대학교	1,772	238	60	82	86	2,238	892	1,346	2,238
7	고려대학교	1,151	93	517	2	311	2,074	116	1,958	2,074
8	한양대학교	1,504	30	262	115	78	1,989	966	1,023	1,989
9	중앙대학교	1,596	6	112	-	-	1,714	324	1,390	1,714
10	상명대학교	1,632	-	-	-	-	1,632	112	1,520	1,632
11	청주대학교	1,361	46	-	-	-	1,407	344	1,063	1,407
12	동국대학교	1,252	7	103	-	8	1,370	177	1,193	1,370
13	전북대학교	938	7	242	44	25	1,256	306	950	1,256
14	경북대학교	883	58	275	1	8	1,225	258	967	1,225
15	인하대학교	753	67	344	24	12	1,200	227	973	1,200
16	선문대학교	1,124	20	27	-	14	1,185	799	386	1,185
17	한국외대학교	1,040	55	63	-	2	1,160	233	927	1,160
18	계명대학교	1,024	53	12	-	44	1,133	332	801	1,133
19	전남대학교	1,010	85	33	3	-	1,131	297	834	1,131
20	배재대학교	1,028	53	18	1	-	1,100	368	732	1,100

여기에서는 그 학교 학생 수에 비하여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로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10%에 가까운 경우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 학생들의 학업이 성공적인가는 한국 학생들을 포함한 학생 전체가 받는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언어적인 문제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5)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0)(<http://www.mest.go.kr>). 2010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내부자료

3. 유학생 유치 정책 관련

가. 유학생 유치의 양적 확대

<표 1> 연도별 유학생 수를 보면 외견상 양적 확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 3>에서 알 수 있듯 양적 확대의 대부분을 자비유학생이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초청장학생이나 대학초청장학생, 자국정부과견장학생의 수는 거의 늘지 않고 있다. 유학생의 질적 제고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양적 확대는, 자비유학생의 증가 비율에 부합하는 장학생 형태의 유학생 수의 증가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유학생 유치의 질적 제고

<표 II-4>

출신 지역별 유학생 수 (2010. 4. 1 기준)⁶⁾

(단위 : 명)

지 역	어학 연수	과 정 별						기타 연수	합 계
		인문사회	이공계	자연계	예체능	의학계	계		
아시아	15,372	39,392	8,702	4,076	3,778	470	56,418	48	71,838
아프리카	162	433	112	47	5	11	608	809	1,579
오세아니아	64	118	14	9	11	6	158	1,154	1,376
북미	680	1,180	100	125	110	91	1,606	16	2,302
남미	152	227	57	14	10	3	311	4,693	5,156
유럽	634	699	106	41	47	6	899	58	1,591
합 계	17,064	42,049	9,091	4,312	3,961	587	60,000	6,778	83,842

유학생 유치 현황을 분석해보면 양적 확대가 질적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0)(<http://www.mest.go.kr>). 2010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내부자료

- 아시아 출신 유학생의 편중도가 지나침
-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
- 선진국에 나간 우리나라의 유학생 수에 비해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 출신이 극소수
- 국제 사회에서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아프리카와 남미 출신도 매우 적음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몇 가지 논점

- 유학생 유치 사업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인식의 전환 필요성
- 유학생 유치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 유학생 유치 노력의 불필요한 중복성 탈피
- 유학생 출신의 지역적 균형과 다변화를 위한 협의와 협력의 필요성
- 원거리 국가들에서의 한국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 유학생 유치 및 홍보 자료 제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

이상에서 조사한 바를 바탕으로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정부와 기업이 감당해야 할 재정적, 제도적 측면, 대학에 제공해야 할 교육적인 내용과 전반적인 교육 환경, 취업과 국내 정착에 관련된 문제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 유학생 지원을 위한 인력과 조직의 부족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유학지원팀, 대학 담당자, 관련부처, 기업 등 관련기관 간 연계 체제가 부족)

2) 유학생 입국 지원 체제 미흡

유학박람회 개최 및 참가 시 문화관광부의 해외문화원, 국정 홍보처의 해외한국문화홍보원·홍보관, 외국의 국제교류협의회 등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인터넷 한국유학 안내시스템(www.studyinkorea.go.kr)을 운영하고 있지만 미흡

- 3) 정부와 기업의 유학생 유치에 대한 인식 및 투자 부족
- 4)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의 비활성화
- 5) 대학-기업 간 유학생 상호 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 미흡(미국-인턴십프로그램)
- 6) 재원 부족으로 인한 대학의 유학생 유치 여건 미흡(장학금 제도/기숙사 수용률)
- 7) 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의 미비함(한국어 연수프로그램/외국어전용강좌)
- 8) 유학생 지원 및 취업·사후 관리 소홀
- 9)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 변경 허용 대상 제한

4.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정책 관련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여 적지 않은 수의 유학생을 받아들인 국내 대학 기관의 경우도 그 사후 관리의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현실적인 정보력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각 대학 기관에서는 유학생 관리 인력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며, 이들 대학 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유치한 유학생의 관리의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거주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유학생 수의 증가에 따른 기숙사 시설 등이 부족하여 유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유학생 유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하고 있다. 내국인 학생들과 달리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기숙사 등이 제공되지 않으면 주거에 대한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제대로 유학생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기숙사 등 주거의 문제와 함께 유학 중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유학생에 대한 건강, 상해 보험 등의 안전장치가 꼼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권 등을 포함한 유학 생활 전반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상담하고 의논할 수 있는 센터나 상담소의 설치도 필요하다.

유학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들 유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국어 교육을 통한 한국어 구사 능력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입학 후 전공 과목을 제대로 수강할 수 있도록

록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학이 적지 않다는 점은 큰 문제라 하겠다.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입학할 허가하지 않고 한국어 교육을 더 받게 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에 상관없이 무조건 입학시키는 대학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어 구사 능력이 거의 없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무조건 학부나 대학원에 입학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유발한다.

- ① 유학생이 유학의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 ② 같이 공부하는 한국인 학생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 ③ 유학생의 수준이 떨어지게 되므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다.
- ④ 유학생 본인의 유학생생활 만족도가 저하되므로 모국에서의 한국 유학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다.
- ⑤ 인재개발을 통한 국제교류 및 협력이라는 궁극적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4.1. 외국의 사례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아래 제시한다.

* 일본의 유학생 관리 현황 및 정책 분석

외국보다 물가가 높은 일본에서는, 유학생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국비외국인 유학생의 수용 정책을 정비하는 한편 사비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수업료 감면조치 등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1. 국비유학생제도는 대학원 대상으로는 연구 유학생, 교원 연수 유학생, 차세대 지도자 프로그램(YLP)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학부 대상으로는 학부 유학생, 일본어·일본문화연수 유학생 프로그램 등 두 가지, 고등전문학교 유학생 프로그램, 전수학교 유학생 프로그램과 같은 7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2. 문부과학성에서는 사비 유학생에 대하여는 이들 중 우수한 인재들을 대상으로 국비 유학생으로 전환하여 수업료 감면 조치를 제공
3. JASSO에서는 사비 유학생들이나 대학 진학을 목표로 일본어 교육기관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연수생에 대하여 학습 장려금, 의료비(자기부담액)의 일부를 보조
4. 지역 사회에서는 지역 주민과의 각종 교류 사업 촉진, 홈스테이, 가정 방문 확대, 유학생 장학금 지급, 숙소 제공
5. 일본학생지원기구 JASSO

일본 학생 지원기구는 학생지원을 선도하는 중핵 기관으로서, 장학금 융자사업 및 유학생 지원 사업, 학생 생활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 장학금 대여 사업

경제적 이유로 인해 수학이 곤란한 우수한 학생 등에 대해서 장학금을 대출하고 있다. 무이자인 제1종 장학금과 유이자인 제2종 장학금이 있다.

2) 유학생 지원 사업

① 유학생 기숙사 설치 및 운영

- 일본학생지원기구에서는 유학생 기숙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적절한 민간 기숙사를 개척, 민간기업이 사원용 기숙사에 유학생들을 받아들일 경우 그 기업에 대한 지원
- 각 유학생 기숙사에 거주하는 일본인 학생이 튜터로서 유학생에 대해 지도조언을 행하는 사업
- 유보증인 부담을 경감 및 입거자의 손해 보상을 목적으로 한 ‘유학생 주택종합 보상제도’ 등의 시책 실시

② 일본유학시험

③ 유학생 교류 추진 사업

- 유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영어로 된 수업)
- 지역에서의 유학생 지원
- 귀국 유학생에게 대한 원조 (전문지·학회지 송부, 지도 교수 파견)

3) 학생 생활 지원 사업

- ① 정보수집 및 제공
- ② 각종 연수 사업 (학생 지도 관련 연수, 학생 상담 관련 연수, 수학 지도 관련 연수, 유학생 관련 연수, 장애 학생 수학 지원 관련 연수)
- ③ 장애 학생의 수학지원 사업
- ④ 학생 봉사 활동 지원 사업

* 호주의 유학생 지원 정책 분석

1. 유학생 관리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과 병행하여 80-85%이상의 출석률 유지, 2과목 이상 낙제 시 비자 취소 등 수업 활동 상황을 엄격히 비자에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의무를 지키게 하고 이 통계는 차후 해당 국가의 학생비자 발급요건에 반영된다. 현재 유학생들의 학업 수행 성실도에 따라 차후 한국의 유학생 비자 발급 시에 요건이 강화되거나 완화된다.

2. 의료

유학생은 이민성의 허가를 받아 주당 20시간, 방학기간 중에는 풀타임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저렴한 유학생 의료보험(OSHC)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호주인과 유사한 기본적인 의료제공을 받도록 한다.

3. 장학금 제도

4. 현지 생활 및 졸업 후 지원

호주 교육기관은 수학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교육, 유학생 상담원 지정, 각종 신청서 작성 및 비자 처리 지원, 도착시의 환영 및 오리엔테이션, 건강 및 주거, 구직 관련 카운슬링 등 유학생의 새로운 환경 및 생활에 대한 정착과 학업수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주정부는 호주와 외국 간에 자격증 상호 인정을 위한 작업을 해 왔으며 졸업생을 대상으로 호주에서의 취직과 진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준다. 또한 정부는 호주 경제에 기여할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술 이민 프로그램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부여하며 이것은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편인 동시에 자비로 유학한 학생 중 우수한 기술 노동력을 호주에 남게 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5. 유학생 지원 및 관리 기관

1) AEI (Australian Education International)

호주정부의 유학정책 수립 및 수행을 위한 정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유학원의 업무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호주정부 공인 민간 단체를 설립하여 긴밀한 연계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 유학 정보를 위한 다양한 호주 정부 공식 웹사이트는 호주 유학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두 AEI에 링크되어 있어 유학생이 언제든지 방문하면 모든 정보를 구할 수 있도록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다.

① CRICOS

② Study in Australia - 정부 공식 웹사이트로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을 비롯한 14개 국가의 언어로 유학 자료를 제공한다. 이 사이트에는 호주 유학과 관련하여 호주 유학의 장점, 호주 정부 인증 교육 기관, 다양한 학업 코스, 학비, 생활비, 유학 수속 과정, 비자 요건 등 그 외에도 유학생 및 호주 유학 생활 전반에 관한 신뢰성 있는 정보가 탑재되어 있다.

2) IDP(International Development Program Education)

-> 교육 상담, 교육 출판물 간행, 박람회 개최, 영어 평가(IELTS) 시행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유학생을 유치하고, 영어 평가 주관, 그리고 국제적인 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관리

4.2. 사례 분석

일본 및 호주의 사례 분석을 통해 이들 국가들의 정책이 갖는 효과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정책 수립에 수용할 수 있는 점을 제시하였다.

가. 경제적 지원

1. 다양한 장학금 제도의 마련과 시행이 필요
2. 입학 전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용과 관련해 여러 가지 법령과 제도에 의해 금지된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

나. 정보 및 교류 지원

유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문제점을 의논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지역민과의 교류를 연결 - 홈스테이나 홈비지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2. 유학생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지원
3. 유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 필요-글로벌 라운지
4. 한 대학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라운지가 특정 대학이 아닌 공공의 공간에 설치
5. 유학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착 도우미 제도의 운영 - 외국인 유학생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

5. 유학생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전담 기구 설립의 필요성

현재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가장 집중적인 노력과 활동을 하는 곳은, 지방 소재 사립대학들이다. 이들은 내국인 학생 수의 급감으로 인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예기치 못한 문제도 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내국인 학생들로 정원을 채우지 못할 정도의 수준에 있는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여 모자란 인원을 채운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그러한 대학에 유학을 오는 유학생들의 수준도 떨어진다는 선입견이 늘고 있다. 따라서 유능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편견으로 인해 발전이 가로막혀왔던 지방소재 대학들이 인재를 양성하여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긍정적으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와 제도 마련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유학생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통합 기구의 설립과 시스템 구축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유학생 전담 기구는 외국인 유학생만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기구로서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유학생을 전담한다는 말은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만 담당하는 것으로는 전담 기구 설립에 대한 대내외적 합목적성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담 기구 설립의 대내외적인

목적과 취지는 국가 간 우수 인력 교류를 통한 인류 발전, 교육의 질적 향상, 좋은 교육 기회의 균등한 성취, 국가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국내 우수 인재들도 관리가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해외 유학을 갈 수 있도록 국가 간, 대학 간 우수 교육 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교류할 수 있는 정보 교류 기구로서의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학생 전담 기구는 입국 비자 발급에서부터 모든 유학생 업무를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담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유학생 전담 기구는 정부 산하 기구로 설립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 등을 이끌어내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JASSO와 같은 독립 법인 형태가 되는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영국 문화원’ 과 같은 성격의 기구가 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 설립 목적

본 기구는 국가 간 우수 인력 교류를 통한 인류 발전, 교육의 질적 향상,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의 균등한 분배, 국가 간 인적 네트워크 확보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관리 및 국외 한국인 유학생의 관리 그리고 국내외 우수 유학 인재들의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효율적 활용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기구는 포용력 있는 인간성과 창조적인 능력을 지녀 국제화 시대에서 주요 역할을 해낼 인력과 다음 세대를 담당할 우수 인력을 양성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외의 우수 인력을 국내로 유인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제 사회 속에서 한국을 지원 지지해 줄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우수 유학생 유치 활동을 제1차적 과제로 삼는다. 아울러 기존의 수용 중심의 유학생 정책에서 상호 교류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자국민의 국외 유학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 역시 담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호 교류의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국내 유학 경험 외국인 인재 및 국외 유학 경험 자국민 인재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 풀(Pool)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역할 또한 담당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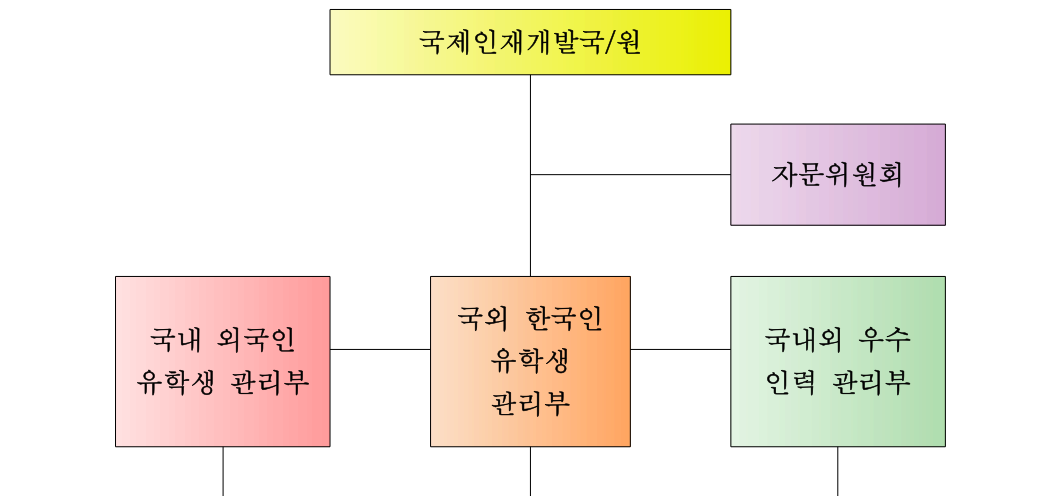
나. 기구의 성격

‘국제인재개발국/원’의 성격



다. 전담기구의 조직(안)

‘국제인재개발국/원’의 조직



- 유치 관련 업무
 - 홍보, 유학박람회 등
 - 홈페이지 관리
 - 유학시험 관리
- 유학 중 지원 관리 업무
 - 장학 혜택
 - 기숙사
 - 기타 생활 복지 등
- 5년 단위 중장기 계획
- 국외 한국어교육의 실시
- 국내 대학 유학생 담당 기관 협력
- 국내외 한국 유학 관련 회사 협력
- 기타

- 유학 정보 제공
- 유학 중 주요 정보 제공
- 한국 정부 장학제도 정보
- 유학 국가 장학제도 정보
- 기타

- 외국인 유학생 사후 관리
- 한국인 유학생 사후 관리
- 이들 인력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및 community 마련
- 기타 정보망 구축 운영

5.2. 전담 기구의 업무 분장

가. 국내 외국인 유학생 관리부

(1) 유치 관련 업무

- (가) 유치 활동 주체의 다양화 및 대학과의 협력
- (나) 대학 입학 자격의 완화 및 대학의 자율성 확대 지원
- (다) 대학 별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대 지원
- (라) 한국어 구사 능력 기준 강화 및 학습 기회 제공
- (마) 유학 시험 개발 및 관리
- (바) 유관 부서와의 협력
- (사) 한국 대학 유학 담당 기관과의 협력
- (아) 국내외 한국 유학 관련 회사 협의체와 협력

(2) 유학 중 지원 관리 업무

- (가) 대학 교육 제도 및 장학 제도 관련 사업
- (나) 기숙사 및 여타 외국인 유학생 수용 관련 업무
- (다) 지역 사회에서의 유학생 지원 유도 등의 기타 생활 복지 지원 업무
- (라) 지역별 거점을 통한 대학 및 현지 유학기관들과의 효율적 협력

(마) 기타 -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관리해 나간다면, 유학생들의 의료 관련 상담 및 안내, 한국 관련 정보 제공 등

(3) 유치 활성화를 위한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안 마련

최대 수용 가능한 외국인 학생 총수의 산출이 최대한 빨리 계산되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숫자까지의 도달 소요 기간, 비용, 기타 여러 여건 마련 및 정책 마련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제대로 된 운영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4) 기타

① 영국의 유학 관리 기관의 브랜드화를 통한 교육 국가로서의 이미지화 노력 및 사설 유학원들의 질적 관리 및 역할 분담 등을 통한 유치 및 관리, 사후 관리의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② 기숙사의 경우 대학의 기숙사든 지방정부 차원의 기숙사든 사설 숙소든 이들을 관리하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 또한 유학생 기숙사는 종래 기숙사의 기능은 유지하되, 국제 이해의 추진 및 국제 협력 정신의 양성이라는 또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유학생 기숙사에 ‘국제학생교류거점’ 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③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중소기업에서의 인턴쉽 기회 제공과 이를 위한 졸업 후 연장 체류 허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외국인 유학생 유치 우수 대학의 다양한 성공 사례를 수집하여 회람케 함으로써 많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다.

나. 국외 한국인 유학생 관리부

(1) 유학 정보 제공 (국가별 주요 대학들을 국가별, 지역별, 전공별로 정리하여 준비 서류나 자격, 장학금 관련 정보, 숙식 관련 정보 등이 제공)

아울러 중고생들의 유학 관련 정보도 최소한의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매년 수만 명의 학생들이 사설 기관을 통해 유학을 준비하고 떠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신뢰도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유학 중 주요 정보 제공 (전공 관련 한국 뉴스 및 학계 소식들을 쉽게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집약된 정보 제공 사이트의 구축이 필요)

(3) 한국 내 장학제도 정보 (정부 장학제도만이 아니라 정부 유관 부서, 기업, 장학 재단 등의 장학 정보를 인문학, 공학, 이학, 상학, 예체능 식으로 구분하여 제공)

(4) 유학 국가 및 국제적 장학제도 정보

(5) 현지 기업 인턴쉽이나 국내 기업 인턴쉽 제도를 최대한 확보하여 학문과 현장 경험의 장을 제공

다. 국내외 우수 인력 관리부

(1) 외국인 유학생 귀국 후 관리

① 유학 중 작성된 유학생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유학 후 직업 및 직장 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현지 유학 박람회 등의 유학생 유치 행사 등에 필요 인원을 참석시켜 유학 경험담이나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관련 전공별로 우수 인력의 경우 한국 내 기업이나 연구소(원), 대학 등의 연구 세미나 또는 단기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정 기간마다 한국을 방문하고 지속적인 인적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③ 국가별 조직된 유학생회에서 발간되는 회보(출판 저널도 가능하고 웹진 등도 가능하다) 등을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지속적으로 한국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2) 한국인 유학생 귀국 후 관리

① 유학 중 혹은 이전에 작성된 개인 별 정보들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적 교류의 상황이나 취업의 경향성, 유학 후 부가적으로 획득되어지는 장점들이 정리되어 유학 준비를 하거나 유학 중인 인력들의 동기 강화나 연계를 가능하게 해 준다.

② 국내외에서 기업 및 대학, 연구 관련 기관들에 의해 개최되는 각종 연구회나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구축된 DB를 바탕으로 관련 전공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이러한 참여 등을 통한 정보·인적 교류를 활성화한다.

③ 주요 전공별로 웹진이나 회보 등을 제작하여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등의 작은 활동으로도 이들이 배려 받고 관심 받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3) 이들 인력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및 통합 DB 구축

(4) 사이트 참여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Community를 구성하여 그 외 유학 대상 국가의 언어, 문화, 생활 관련 정보 제공

6. 결론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개별 대학 주도의 산발적이고 일관성 없이 진행되어온 이제까지의 유학생 관련 정책을 버리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다.

처음에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 마련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국내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방안 모색을 위하여 적극적인 유학생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본 및 호주, 그 외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들 국가들의 정책이 갖는 장단점을 다루고, 그 효과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정책 수립에 수용할 수 있는 점을 제시하였다. 주요 국가들의 사례들을 살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 외국의 유학 정책은 대체로 유학생 유치 정책이 지방 정부나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며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장학금 지원, 대학 경비 보조, 수업료 감면 조치 등의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유학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대학 등에서 유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영국은 유학생을 대학재정 확보의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하여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여 유학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중국은 교육부와 협력기업 공동으로 유학기금을 마련하여 동남아와 아프리카 유학생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유학생 입국 편의와 기숙사 운영 등 유학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경우는 독립법인으로 학생지원기구(JASSO)를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은 중국 학생의 해외유학지원 기구(유학복무중심)와 외국 유학생의 중국 유학지원기구(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유학생 유치를 위한 CampusFrance를 설립하여 한국

을 비롯한 90여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 독일, 호주는 해외 교육원이나 문화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 외국의 유학 정책과 지원기구를 살펴보면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유학생 관리 및 지원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이 같은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유학생들의 국내 유학생활동에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숙사, 의료보험, 장학금 등의 내국인과 유사한 처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중국 편중의 유학생 유치에서 탈피하여 동남아 등 유학국가 다변화를 위한 해외사무소 설치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유치 방안과 후생 복지를 포함하는 관리 방안, 그리고 유학 후 활용 방안을 포함하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의 모색을 시도하였다. 중국적으로는 이들 여러 부분별 방안들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 그리고 업무 영역 분장 등을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는데, 국내 유학생 현황의 분석 자료, 그간 우리 정부의 유학생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과 주요 국가들의 유학생 관련 정책의 장단점의 분석 등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의 목표와 전략, 비전 등을 구상하여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 과제의 도출과 효율적인 추진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유학하여 학습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의 검토와 의견 수렴, 실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 등을 주된 자료 수집 방법으로 택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유학생만이 아니라 유학을 준비 중인 사람들에 관련된 문제들, 국외 대학 재학 학생들의 국내 유학 시 학점 인정 등과 관련된 학제적 기준과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정책 마련 정도 등에 관한 연구는 이번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는 보다 구체적이며 효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서 향후에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연구 부분이다.

그 외, 유학생 입국에 관련된 유관 부서들과의 보다 실제적인 협력 방안 역시 공동의 연구 수행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보다 우수한 유학생의 유치가 가능할 것이고, 양적인 유학생의 증가만이 아닌 질적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능력 있고 준비된 인력 자원을 양성해 낼 수 있는 유학 정책이 될 것이다.

제 2주제 발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업지원 관련사업 제안



최 영 조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2010 대전국제화포럼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취업지원관련사업 제안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상 ↓ 서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 추진 배경
- 유학생 통계
- 외국인 유학생 유치시의 문제점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
- 졸업 후 진로 지원사업 제안
 - 제안배경
 - 기초조사
 - 파트타임 소개
 - 취업설명회 개최
 - 취업박람회 개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추진 배경

-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통한 대학체제 개선 및 대학 경쟁력 강화
- 급격한 국내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미충원 현상 해소
- 교육수출(유학생 유치)을 통한 유학수지 적자 개선

유학생 관련 통계 1

(2010년 6월 말 등록외국인 기준)

출처 : 출입국관리사무소

유형		전국(명)	대전(명)	비율
유학 (D-2)	전문학사(D-2-1)	5,729	138	2.41%
	학사유학(D-2-2)	42,963	2,918	6.79%
	석사유학(D-2-3)	12,543	985	7.85%
	박사유학(D-2-4)	3,615	389	10.76%
	연구유학(D-2-5)	84	5	5.95%
	교환학생(D-2-F)	6	0	0
합계		64,940	4,435	6.83%

※ 6월말에는 교환유학생이 없는 시기임

유학생 관련 통계

(2010년 6월 말 등록외국인 기준)

출처 : 출입국관리사무소

유형		전국(명)	대전(명)	비율
일반연수 (D-4)	한국어연수(D-4-1)	16,513	767	4.64%
	기타연수(D-4-2)	688	43	6.25%
	초중고생(D-4-3)	483	4	0.83%
합계		17,684	814	4.60%

※ 대전시의 외국인 유학생은 학사, 석·박사 유학생이 평균보다 수치가 높음.
대전시의 외국인 유학생은 수준이 높고, 이탈률도 타 시도에 비하여 적음.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문제점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시 일반적인 문제점
 - 기본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대학의 외국인 수학여권건취약
 - 장학금 지원 부족
 - 입국, 관리 및 지원체제 미흡
 -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지원 부족

- 문제점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
 - 체계적 행정지원체제 구축
 - 외국인 유학생 수학여건 개선
 -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확대
 -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지원

외국인 유학생 진로 지원에 관한 제안

□ 제안배경

- 대전시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2008년 4,287명 / 2009년 4,957명 / 2010년 6월말 기준 5,249명)
- 외국인 유학생 수는 광역시중에서 3번째, 외국인대비 유학생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2010년 6월말 기준 대전시 외국인 수 14,427명의 36.38%인 5,249명)
- 학사, 석·박사 과정의 유학생이 많아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이 많음
- 대전시는 유학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 뉴커머데이, 외국인 유학생의 날을 실시하고 있음
- 양적 및 질적으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꾸준하게 유치하여 도시의 국제화 및 브랜드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졸업 후 진로 선택과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함
- 유학하기 좋은 도시 + 취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화가 필요함

외국인 유학생 진로 지원에 관한 제안

□ 유학생 시간제 근로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시간제 근로기회 제공

- 유학생의 시간제 근로 및 인턴쉽에 대한 설문조사(시간제 근로 및 인턴쉽 경험 유무·근무 업종·근로형태·급여조건·희망 업종 등)
- 대전시에서 실시한 외국인 유학생 인턴쉽 및 시간제 근로에 대한 평가
- 시간제 근로 및 취업을 위한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근로 및 인턴쉽에 대한 정보제공
(공공기관, 외국인 지원기관 및 단체, 고용안정센터 등 경제유관기관, 기업 등과 연계된 시간제 근로 및 인턴쉽 정보 제공 및 소개)

외국인 유학생 진로 지원에 관한 제안

□ 기초조사

- 대전에서 공부하게 된 계기 및 이유
- 전국 및 대전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대한 통계 조사
- 각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법 및 특화된 사업에 대한 조사

□ 유학생의 진로에 대한 조사

- 각 대학별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 현황
(귀국·상급 교육기관 진학·본국에서 취업·한국에서의 취업)
- 유학생이 원하는 졸업 후 진로의 유형
(귀국·상급교육기관 진학·본국에서의 취업·한국에서의 취업)
- 각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진로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 각 대학 및 외국인 유학생이 진로를 위해서 대전시에 제안하고 싶은 내용

외국인 유학생 진로 지원에 관한 제안

□ 취업설명회 및 박람회 개최

- 목적
 - 졸업 후의 진로 선택 및 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속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함
 - 개별 대학차원에서 준비하기엔 노력과 비용에 비하여 효율성이 저하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를 포함한 공공기관·대학·기업이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함
- 주체 : 대전광역시 및 경제유관기관·각 대학(교)·기업
- 내용
 - 취업설명회 : 이력서 작성·면접준비·모의 면접 등
 - 취업박람회 : 기업소개·취업상담·집단 및 개별면접

외국인 유학생 진로 지원에 관한 제안

○ 참가대상 및 연관 취업처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및 연구기관과 연계된 고급인력 취업 지원
- 대전·충남북의 기업들과 연계한 전문인력·무역 관련 직종의 취업
-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의 취업 지원

○ 대전시가 주최하는 “유학생의 날” 과 연계된 취업설명회는 2011년도에 개최 가능하나 취업박람회의 경우 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추가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대전충청 취업관련사이트에 외국인 유학생 취업관련 메뉴 추가

○ 구인 및 구직관련 정보 제공

감사합니다.

최영조 /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2010. 11. 30